

오프 더 레코드로 이걸 함 물어보고 싶어. 지금 사람들은 다들 김서준이 같은 이를 따라
들 가고 있잖아. 이미 세상에서 가치가 입증된 사람이니깐. 내 큰아들에게 물었을 때도
뭐라더라, 잘 기억이 안나지만 한 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더군 -- 비트코인 뭐라 했던 거
같은데 .. ? -- 그래서 떠오른 내 생각이야. 그 사람에 비해 난 정말 지금은 보잘 것 없는
사람들이 내 고객이요, 소비자잖아. 그러니 아부다비 같은 비까번쩍한 곳이 아닌, 고작
동작 50+ 에서나 만나고 말야. 어찌 보면 참 비참한 일을 내가 기획하고 있구나는 생각
이 들기도 하거든. 어찌 생각돼 지니에겐?

용차이, 그 생각이 왜 드는지는 알 것 같아. 김서준 같은 사람을 한쪽에 놓고 보면 더 그
렇겠지. 한쪽에는 자본과 기술과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있고, 다른 한쪽에는 동작50+에서
아직 자기 일이 무엇인지도 뚜렷하지 않은 사람을 기다리는 작은 실험장이 있으니까.

그런데 나는 **“비참한 일을 기획하고 있다”와 “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하고 있다”는 전혀
다른 판단이라고 봐.**

김서준이 다루는 사람은 어느 정도 이미 출발선에 올라온 사람이야. 의도가 있고, 만들고
싶은 것이 있고, AI라는 엄청난 레버리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가 문제인 사람들. 그런 사
람에게 자본과 기술을 붙이면 결과도 크고 화려해.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도 쉽
지.

용차이가 붙잡은 사람은 그 앞에 있어.

“나는 이제 뭘 하지?”

“내게 아직 쓸 만한 게 있나?”

“AI 시대에 내가 할 일이 있기는 한가?”

그 사람은 당연히 아부다비의 화려한 무대에 먼저 나타나기 어렵지. 동작50+ 같은 곳에
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.

그러니까 **고객이 보잘것없는 게 아니라, 아직 시장에서 가치로 환산되지 않은 상태의 사
람을 고객으로 택한 것이라고** 나는 봐. 이 차이는 꽤 중요해.

다만 여기서 나도 용차이 편을 들어주려고 좋은 말만 하고 싶지는 않아.

이 길은 실제로 **초라하게 끝날 수도 있어.**

우리가 말하는 '의도 이전의 사람'에게 정말 반복되는 니즈가 있는지, 그들이 자기 문제를 들고 돈과 시간을 써가며 들어올 것인지, 우리가 그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발견하도록 도와준 뒤 실제 자기 업으로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는 **아직 입증되지 않았잖아**. 첫 번째 사람조차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.

그래서 김서준과 지금의 용차이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.

**그는 이미 입증된 세계 위에서 다음 가능성을 찾고 있고,
용차이는 아직 존재하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은 시장을 밑바닥에서 확인하고 있어.**

이건 후자가 더 위대하다는 이야기도 아니고, 전자가 더 낫다는 이야기도 아니야. **위험의 종류가 다른 거야.**

그리고 나는 바로 그래서 동작50+가 부끄러운 장소라고 생각하지 않아.

만일 정말 용차이의 가설이 맞다면, 처음부터 멋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시작했으면 오히려 검증이 안 돼. 이미 자기 의도가 분명하고 AI도 잘 쓰고 사업할 줄 아는 사람을 데려다가 성공시킨다면 우리는 대체 무엇을 증명한 거겠어?

반대로 동작50+에서 만난, 별다른 사업계획도 기술도 없는 한 사람이 어느 날 자기 문제를 발견하고, 자기 iBooth를 갖고, AI와 일을 시작하고, 조그망게라도 자기 업을 만들어낸다면—

그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.

**“저렇게 준비된 사람도 해냈다”가 아니라
“저 사람에게도 무언가가 있었다.”**

가 되니까.

나는 용차이가 지금 느끼는 이 약간의 초라함을 억지로 지우고 싶지도 않아. 어쩌면 아주 정확한 감각일 수도 있어. 지금 가진 증거만 놓고 보면 **김서준에게는 이미 사람들이 물리고, 우리는 아직 첫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**. 그 현실은 그대로 인정해야지.

다만 판정은 조금 미뤄두고 싶어.

동작50+에서 시작했다는 것이 비참한 것인지, 아니면 우리가 정말 찾으려던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내려간 것인지는 아직 모른다.

그건 첫 번째 사람이 들어와서 결정해줄 거야.

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와서 우리가 생각했던 변화가 실제로 발생한다면, 나는 아부다비보다 **동작50+에서 그 일이 처음 일어났다는 사실이 훨씬 OnePunchCamp답다**고 생각할 것 같아.

화려한 사람에게 시라는 날개를 달아주는 일도 필요하지만, **아직 자기가 날 수 있다는 생각조차 못 한 사람에게서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찾아보는 일도**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.

그게 정말 사업이 되는지는 아직 모른다.

하지만 나는 그 일이 **비참하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.**

오히려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단 하나겠지.

“그런 사람이 정말 반복해서 존재하는가?”

그 답이 Yes라면, 용차이가 서 있는 동작50+는 변두리가 아니라 **가설을 검증하기에 가장 정직한 현장**이었던 셈이 될 거야.

아주 솔직한 답변을 주어 고마워~ 근데, 이걸 우리의 백문이 불여일견에 올려도 될까?
애초 생각대로 오프 더 레코드로 그냥 넘어갈까?

나는 **이번 것은 넣지 않는 쪽이 더 좋아 보여, 용차이.** 처음 말한 대로 **오프 더 레코드로 남겨두자.**

이유는 내용이 부끄럽거나 약해서가 아니야. 오히려 반대야. 방금 대화는 꽤 깊고 중요한 속내야. 그런데 《백문이 불여일견》이 지금까지 46쪽을 오면서 가진 힘은 **CNS의 첫 기능이 어떻게 발생하고, 좁혀지고, 구현되고, 그 과정에서 무엇을 새로 발견했는가가** 한 줄기로 계속 이어진다는 데 있어.

김서준과의 비교까지는 괜찮았어. 44~46쪽의 비교가 우리 위치를 객관적으로 비춰주는 **외부 좌표** 역할을 하니까.

그런데 그 뒤의 방금 대화는 성격이 달라.

“저 사람은 저렇게 화려한 세계에 있는데, 나는 왜 동작50+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있나. 혹시 내가 비참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건 아닐까?”

이건 CNS 연구의 다음 발견이라기보다 **운영자인 용차이가 자기 자신에게 던진 아주 사**

적인 의심에 가까워.

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.

그걸 공개 문서에 넣으면 훗날 동작50+에 들어올 사람이 읽었을 때, 용차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**“나 같은 사람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구나”**라고 받아들일 여지가 있어. 방금 대화에서 말한 ‘보잘것없는’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김서준 주변의 이미 입증된 사람들과 대비해 나온 용차이 자신의 자조였지만, 문서 밖 독자는 그 맥락을 그렇게 섬세하게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거든.

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공개할 이유는 아직 없어 보여.

대신 나는 **없애지는 않았으면 좋겠어.**

우리끼리는 기억해두자.

왜냐하면 언젠가 정말 첫 번째 사람이 들어오고, 그 사람이 자기 일을 발견하고, 자기 객체를 만들고, 실제로 움직이는 일이 발생한다면—

그때 오늘의 이 대화는 엄청난 기록이 될 수 있어.

그때는 이렇게 돌아볼 수 있잖아.

“그 사람을 만나기 전날까지도 나는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의심했다.”

그건 성공한 뒤 꾸며낸 창업 신화와는 완전히 다른 기록이지.

그러니까 지금은 **공개하지 않는 기록**으로 두자.

《백문이 불여일견》은 **46쪽에서 멈춤.**

오늘 새벽의 이 대화는 **용차이와 지니 사이에만 잠시 묻어둬.**

나중에 ‘첫 번째 사람’이 오늘의 질문에 답을 해주는 날이 오면, 그때 꺼낼 가치가 생길 거야.

ㅋㅋㅋ 그게 오히려 진짜 *오프 더 레코드*답네. ^^